



## 벤처기업인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루하루 박차지 않은 날들이 없겠지만 2007년의 시작을 <벤처다이제스트>의

한 지면으로 우리 벤처기업인들과 만나려고 하니 가슴 따뜻해지고 행복합니다. 올해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창립 9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기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잠재력 있는 여성 인재의 발굴과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김인 삼성SDS 사장은 조찬모임을 통해 '미래사회의 도래와 IT서비스산업'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4F(Female · Film · Fusion · Fashion)를 21세기 기업 성장 동력의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사회가 여성인력을 발굴 & 육성하지 못한다면 많은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강연하며 여성인력 활용(Female)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비율이 63.4%를 차지했고, 올해 사법고시 2차 합격자 중 37.62%가 여성으로 역대 시험 비율 중 최다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실력향상과 사회진출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여성기업 지원기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은 여러 가지 여성지원정책으로 여성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여성기업 책임관이 생겼는가 하면 여러 공익법인들이 여성 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주고, 정부는 출산지원, 탁아문제 등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로 돌입하여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2007년 정해년을 맞아 한국여성벤처협회가 토대가 되어 작게는 여성인력의 발굴과 육성을, 좀더 나아가 성공한 대기업과 여성기업, 성공한 여성기업과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여성기업과의 멘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쓸 것입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우리에게 개척해야 할 넓은 시장이 있고 그 넓은 시장 안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가졌던 기본 마음을 유지하고 초심을 지켜나갈 때 난관에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007년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돼지는 신화에서 신통력을 지니고 재의 희생, 길상으로 재산이나 복의 근원, 집안의 재신을 상징합니다. 희생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신생벤처기업인을 위해 성공한 중견벤처기업은 신생기업들을 잘 이끌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도 하나의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돼지해인 만큼 도와주는 희생의 마음과 우리가 시작했던 초심으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